

애들아! 아빠랑 차박 가자

글. 장상원 CBS 정보네트워크부 차장



차박. 요즘은 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원래 캠핑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와 같은 자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통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잘 갖춰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곤 했는데, 2010년부터 갑자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캠핑 붐이 일어났다.

오토캠핑장이 일반 야영장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전기를 제공한다. 전기로 인해 차가운 텐트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고 조명과 선풍기, 전기 포트, 빔프로젝터 등 현대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자연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서서히 늘어나는 캠핑 장비는 또 다른 고민을 낳았다. 본의 아니게 차량 트렁크에 누가 테트리스를 잘하는지 겨루게 되었고 차량을 SUV로 바꾼다든지 캐리어를 차 지붕에 엮기까지 하였다. 내가 보는 더 큰 고민은 캠핑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소비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만일 1박 2일로 캠핑을 간다면 텐트 치고 걷는 기억만 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힘든 부분

과 그래도 자연에서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만나 차박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두 아이의 아빠인 나 또한 위와 같은 고민에서 차박을 준비했고 처음 떠나는 차박을 어떤 콘셉트로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이번 차박의 주제를 ‘차박 전국 일주’로 정했다.

차박 전국 일주

전국을 일주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이들한테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욕심에서 시작했다. 2020년 4.15 선거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전라도와 경상도 얘기를 했더니 해당 지역을 모르고 있던 일이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된 것이다. 11살, 7살 두 아이한테 ‘차박 전국 일주’를 하자고 했더니 역시나 반응은 냉담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이 사는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를 제외하고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까지 제외하면 [그림 1]과 같이 4개의 도(道)가 나온다고 설명하고 여행 일자와 순번을 정했다. 서울/경기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



그림 1. 전국 일주 일자 및 순서

상북도 → 충청북도 → 강원도로 이루어진 코스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니 나름 흥미를 보였다. 아이들이 원래 캠핑은 종종 다녀서 차박이란 단어도 ‘우리 차에서 잘 거야’란 설명으로 쉽게 넘어갔다. 문제는 ‘일주’라는 단어였다. 보통 캠핑을 가면 2박 내지 3박인데, 무려 7박을 가져다 하니 COVID-19로 가뜰이나 편해진 집에서 더 나가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아이들을 설득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각종 뇌물(게임 시간, 동영상 시청 시간 늘려 주기 등)을 동원해 설득했고 그렇게 차박 전국 일주는 아빠와 두 아이, 이렇게 셋이 가기로 정했다. 아이 엄마에게는 차 안에서 4명은 도저히 잘 수 없다고 얘기하자 ‘그럼 내가 빠질게’라며 서운한 듯 안 한 듯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차박 준비

처음 가는 차박 일정에 7개의 지역을 하루 1박씩으로 정하다 보니 차량에 들어가는 필수용품은 미리 구매하고 나머지 식품과 의약품들은 그때그때 구매하기로 했다. 우선 내 차량이 디스커버리4 SUV이기 때문에 2열과 3열이 모두 접히고 또한 그 접은 면적이 평탄하여 차박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평탄해진 바닥 위로 매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격대비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5cm의 자충(자동충전)매트’이다. 3만 원 대의 자충매트로도 차 안에서 자거나 앉아있는데 큰 무리가 없다. 두께를 5cm로 추천하는 이유는 8cm 이상이면 차 천장과 높이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트렁크 도킹 텐트(용어는 제조사마다 다름)를 마련했다. 차량을 1박 할 지역에 주차하고 나서는 트렁크를 열어놔야 개방감과 낭만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벌레나 모기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방충망이 필요한데, 이미 차량마다 트렁크 쪽에 거의 딱 들어맞는 방충망을 판매하고 있었다. 나의 경우, 일반 방충망보다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어 [그림 2]와 같이 옆면도 가려줄 수 있는 트렁크 도킹 텐트를 구매했다.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창문은 일반 방충망(3천 원 내외)을 사서 가위로 재단하여 창문에 대고, 창틀에 자석을 붙여 고정했다. 그 밖에 선풍기, 조명은 배터리 내장형으로 준비하여 차량 이동 시 충전하고 밤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7일 동안 이용하였고, 평소 캠핑 시 이용하던 캠핑 박스를 챙겨서 잡동사니 등을 담은 용도와 아이들 책상 용도로 활용하였다. 버너는 햇반이나 3분 요리 등과 같이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걸 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냄비를 곁한 캠핑 버너로 챙겼다.



그림 2. 차박 준비물

IT'S SUMMER TIME!



그림 3. 충남 왜목마을

차박 시작

시작하기에 앞서 크게 4가지 원칙을 정하고 갔다.

- ☞ 하루 시작으로 아침을 간단히 먹고 11시쯤에 차를 출발하여 휴게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2시쯤에 목표한 지역에 도착한다.
- ☞ 도착한 후 지역 탐방을 하고, 6시쯤 차박할 장소를 정해서 저녁을 먹는다.
- ☞ 저녁엔 차 안에서 아이들 할 일(방학 숙제, 동영상 강의, 일기 등)을 하고 잔다.
- ☞ 3일 차, 6일 차에는 모텔 또는 캠핑장 방갈로에 묵으며 옷을 세탁하고 에어컨으로 말린다.

 **8월 2일** 드디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충청남도로 향했다. 충남에서 유명한 해수욕장을 찾아보니 '왜목마을'이 나왔다. 가는 경로상에 있었고 모래 사변을 따라 주차장과 공중화장실까지 잘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3]의 가운데 사진처럼 처음에는 방파제 길에

주차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보다 안전한 해변 주차장에 주차했다.

차박은 처음이라 방향을 몇 차례 했지만, 아이들과 모래놀이도 실컷 한 후, 해변 샤워장에서 씻겼다. 그다음, 차 안에서 밤에 할 것과 간식 먹으며 '스텔스 모드'로 잠을 잤다. '스텔스 모드'는 밖에서 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얇전히 잠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느낀 건 최근에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의 '차박모드'로 에어컨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물론 대용량 배터리와 창문형 에어컨을 달면 되지만 이번 한 번만 차박할 수도 있어서 열심히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었다.

 **8월 3일** 둘째 날 아침, 3분 짜장으로 가볍게 아침을 먹고 왜목마을에서 벗어나 전라북도 내장산으로 향했다. 내장산 문화광장은 주변에 박물관과 계곡이 있어서 둘러보기에 좋았다. 낮에는 아이들이





그림 4. 전북 내장산 문화광장

자연에서 놀도록 놔두고, 이어서 차박할 장소를 찾아보았다. 이날 원래 생각했던 차박지가 유료로 운영되는 캠핑장이라 1시간 정도 다른 차박지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내장산 생태탐방원’이 눈에 띄었고 외부 주차장에는 따로 공중화장실까지 있어서 차박으로 적합하였다. 주차하고 이날은 트렁크 텐트까지 연결하고선 모든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잠을 잤다.



셋째 날 아침,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언제나 그렇듯 다음 목적지인 전라남도 무안으로 떠났다. 항상,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점심을 해결했으며 분리수거와 쓰레기도 휴게소를 통해 해결했다. (별로 쓰레기가 나오진 않았다) 처음 도착한 ‘돌머리 해수욕장’의 갯벌은 넓고 좋았는데 오후 2시의 땡벌에서는 1분도 서 있질 못할 정도로 뜨거워서 일단 숙소로 들어갔다. 셋째 날은 밀린 빨래도 하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일부터 모텔로 숙소를 잡았다. 해가 떨어지는 6시에 숙소에서 가까운 ‘툭머리 해수욕장’으로 가니 이제야 해가 지고 있어 갯벌에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놀 수 있었다. 이날은 저녁을 배달 시켜 숙소에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질 않았다. 벌써 야외에서 먹는 그 맛에 길들였던 것일까?



그림 5. 전남 무안 돌, 툭머리 해수욕장

그림 6. 경남 통영, 거제 농소몽돌 해수욕장



넷째 날 아침, 3분 카레로 아침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경상남도 거제로 출발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제에서 가까운 통영의 루지(무동력 바이크)를 타고 일찌감치 애기를 해줬다. 아이들에게는 루지와 같은 액티비티가 역시 효과가 좋다. 기분이 업된 상태로 이제 원래 차박지인 ‘거제 농소몽돌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요즘은 웬만한 해수욕장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물놀

이를 해도 씻는 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젖은 옷은 비닐팩에 잘 넣어뒀다. (말리려고 해도 차 안에서는 절대 안 마른다) 해변 특성상 산보다는 벌레가 없어서 야외에서 꽤 오래 저녁을 먹고 아이들도 잘 놀았던 것 같다.



다섯째 날 아침, 경상북도의 내륙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3번이나 갔으니 올라가는 코스에선 산과 계곡으로 갈 계획이

그림 7. 경북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근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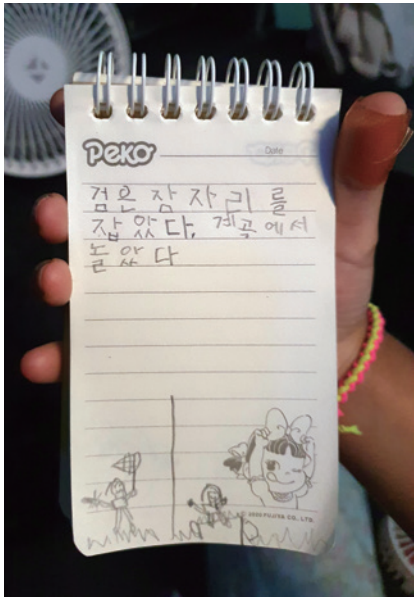


그림 7-1. 경북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에서의 휴식

다. 목적지는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계곡이 길게 잘 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주차장과 야영장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도립공원답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실컷 할 수 있었다. 이날은 너무 더워서 차에서 저녁 먹기를 포기하고 야영지 계곡 밑자락에 있는 식당가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정말 좋았던 건 삼겹살이 아니라 에어컨 바람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식사를 천천히 했다) [그림 7-1]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3명이 잘 때 나는 가운데에 머리를 트렁크 방향으로 자고, 아이들은 양옆에 머리를 앞 좌석 방향으로

자는 것이 제일 편했다. 자리가 좁긴 하지만 여행으로 다들 피곤해서 잠을 잘 잤다.



여섯째 날 아침, 역시 3분 요리로 아침을 먹고 충청북도로 향했다. 항상 차가 가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지?’라고 물었다. 지역마다 몸으로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는 잘 대답했다. 오늘 목적지는 충주의 한 캠핑장인데 평소 일 년에 한 번 10년째 가는 단골 집이었다. ‘아이들한테 익숙한 장소로 안내하면 아이들은



그림 8. 충북 충주 캠핑장





그림 9. 강원도 치악산 캠핑장



알아서 놀고, 나는 편히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란 내막이 깔려 있었다. 여긴 방갈로로 예약해 뒤서 밤새 에어컨 도움으로 시원하게 잠도 자고 웃도 말렸다.



일곱째 날 아침, 이제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질 않는다. 몸을 이끌고 마지막 목적지인 강원도 치악산으로 향했다. 강원도 하면 평창이나 속초, 강릉이 좋긴 하지만 현재 있는 충주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집에 가기도 힘들어서 그나마 가까운 치악산의 어느 캠핑장으로 정했다. 이곳은 캠핑장 자체에 놀이 시설을 갖춰져 있어 어제 갔었던 캠핑장과 다른 느낌으로 낮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긴 오토캠핑장이라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장판으로 바닥 이불을 뽕뽕하게 하고 선풍기를 다 동원하여 차 안을 시원하게 꾸몄다. 이날 저녁은 반반 치킨에 사이다와 맥주였다. 마지막 날 저녁이라 그런지 가장 맛있었다.



8월 9일이 되어 이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도(道)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 제법 알아

들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의외로 금오산 계곡이었다. 아이 둘과 함께 총 세 명이 ‘차박 일주’를 하며 돌아다녀 보니 웬지 자신감이 생겨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경기도에서 1박 더할까?’라며 농담도 건넸다. 이렇게 해서 [그림 10]과 같이 차박 전국 일주 지도가 완성됐다. 아직도 뿌듯한 마음에 크게 프린트하여 집에 걸어놓고 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대용량 배터리와 휴대용 에어컨 또는 난방기로 언제 어디서나 차박하기 편해졌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갈 때는 장비보다는 스토리를 담아서 차박하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다. 지금 글을 쓰는 날 바로 직전에도 오토캠핑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느닷없이 텐트를 놔두고 차에서 자겠다고 하는 걸 보면 꽤 괜찮게 차박 일주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나온 ‘안전한 차박을 위한 6계명’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



그림 10. 차박 전국 일주 지도

안전한 차박을 위한 6계명

- 하나. 보온용품으로 낮과 밤 온도 차에 대비한다.
- 둘. 국립공원, 사유지, 임도 등 야영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 셋. 강, 호수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거나 경사진 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 넷.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음식 조리, 난방, 불멍)는 하지 않는다.
- 다섯. 밀폐된 차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에어컨, 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여섯. 노지 차박 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되가져온다.

